

# “발굴 인부로 인연 20년 수행처 됐죠”

신행연장

감은사탑 지킴이 손해도 거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이 부실 보수로 원형을 잃어간다는 소식이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집니다. 해체 복원시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아 원형 그대로 보수하지 않는다든가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귀중한 문화재의 훼손을 부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은사 탑을 안타깝게 어루만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간 조각은 없나 꼼꼼하게 살펴나간 손해도 500 거사는 안타까운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신라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부처님의 힘으로 왜곡의 침입을 막고자 세웠다는 절, 감은사. 동탑과 서탑, 2기의 탑만이 호국의 정기를 잊고 있는 2001년의 감은사터에는 20년 동안 그터를 지키고 가꾸는 손해도 500 거사의 울골은 문화재 사랑이 스며 있다. 탑의 정식 관리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손거사의 감은사탑 사랑은 스님들이 절을 가꾸고 부처님을 예경하는 예법을 닦아 있어 주위사람들은 그를 ‘감은사탑 지킴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 79년 경주조적발굴조사단이 탑

주변을 전연 발굴할 당시 인부로 참여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부가 되면 나중에 관리인 자격을 준다’는 말로 부인을 설득해 이곳에 정착한 손거사. 그렇게 시작된 탑과의 인연으로 감은사터는 손해도거사의 20년 수행처가 되어버렸다.

해체 복원 후 경주시의 관리와 관쓰레기 치우고 풀베고

애지중지 탑 돌보기

“부실보수로 원형 훼손”

심이 뜰해지자 감은사탑 주변은 금방 풀이 무성해지고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 차 버렸다. 가만히 있어도 땅이 흐르는 한여름에 풀밭을 누벼며 풀을 베고, 하루 한 트럭 분량의 쓰레기를 치워내는 등 손거사의 탑 돌보기는 시작되었다. 물론 탑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혼자서 부담했다. “탑 주변에서 소풍먹이는 동네사람들 막다가 동네 인심도 잃고 절터



◇20년간 감은사탑을 돌보아 온 손해도거사. 손거사는 정부와 불교계가 힘을 모아 감은사지를 제대로 복원·보존해 주기를 염원하고 있다.

에서 고기 구워먹고 고성방가하는 관광객들 저지하다가 먹살도 잡히고 그랬죠.” 호국성지인 감은사터를 유원지로 알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과 정부 문화재 정책의 한시성과 일회성에 아쉬움이 많다. 감은사지 발굴이후 문화재의 가치에 눈을 떠 독학으로 문화재 보수 기공과 고건축분야의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 지금은 문화재 보수일을 하고 있는 손거사. 문화재 발굴현장 곳곳에서 ‘바른소리’ 하는 인부로 정평나 있다. 조금이라도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면 절대 하지 않는 손거사는 그래서 자주 일지리를 잃는다. “내 개인 돈 못 벌면 그만이지만 훼손되는 문화재는 어떻게 하냐? 불교 문화재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백년도 못살고 가면서 당장의 욕심으로 몇 천원을 이어갈 문화재를 망친다면 역사에 큰 과오를 남기는 겁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손

거사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는 외곽수. “지금도 서울로 박물관으로 뛰어다니며 자료를 모으며 감은사 복원의 꿈을 놓지 않고 있는 손 거사는 감은사 사진 전시실을 자신이 운영 하는 조금만 수퍼 한 칸에 마련, 감은사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감은사공과 고건축분야의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 지금은 문화재 보수일을 하고 있는 손거사. 문화재 발굴현장 곳곳에서 ‘바른소리’ 하는 인부로 정평나 있다. 조금이라도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면 절대 하지 않는 손거사는 그래서 자주 일지리를 잃는다. “내 개인 돈 못 벌면 그만이지만 훼손되는 문화재는 어떻게 하냐? 불교 문화재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백년도 못살고 가면서 당장의 욕심으로 몇 천원을 이어갈 문화재를 망친다면 역사에 큰 과오를 남기는 겁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손

손거사는 바람은 “정부와 불교계가 힘을 모아 감은사지를 제대로 보존·복원해 감은사지를 세웠던 선조들의 나라 위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 뿐이다. 그것이 자신의 수행도량인 감은사에 대한 정성이 크게 화환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감포=천미희 기자 (mhcheon@budc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진정한 출가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아집 버리는 것

3월2일(음력 2월8일)은 부처님 출가일이고 9일(음력 2월15일)은 부처님 열반일입니다. 출가 열반일을 맞아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되새겨 수행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출가수행자의 길을 걸을 수는 없더라도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면서 살고자 하는 출가심을 갖는 것은 불제자로서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출가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아집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욕심, 번뇌, 미움 등은 모두 ‘나’라는 아집에서 비롯됨으로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마음의 출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상대가 없어져 서비, 분별, 원망, 미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궁극에 가서는 생각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 실천과 정진 따를 때 아는것의 가치 생겨

그러나 말이나 생각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과 정진이 따를 때 아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더해 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믿음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여타 종교는 절대신을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지만 불교는 수행을 통해 본래면목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완성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수행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생사가 없고 너와 남이 없는 본래면목과 제할 수가 없습니다. 절에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복을 구해도 자신이 생활속에서 복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헛된 일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을 맞아 우리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경건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대로 살



선래스님 부산 법문사 법주

고자하는 발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기간만큼이라도 기도와 정진으로 복이 되는 행동과 생각이 무엇인지 느끼고 배워서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살다보면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고 느낄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집없이 버릴 줄 알 때 세상의 온갖 어려움이 실체가 없이 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애착과 욕망을 끊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텅빈 마음으로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인연을 지어내야 합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라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작은 인연이라도 좋게 맺어지면 반드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인연을 두렵게 맺고자 하는 노력으로 하루 하루의 생활에서 복을 짓고 실천을 이어가는 노력을 해 나가면 언젠가는 자유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내 마음속에 물들여진 온갖 것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 진정한 출가이며 그것은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열반이며 그것은 본래 갖추어진 불성으로 귀의하여 깨달음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되새겨 부처님 출가의 간절한 뜻을 만분의 일이라도 잊지 않고 영원하고 실천한다면 부처님의 법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 신행 캘린더

2월 28일(수)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강당에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을 모시고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027703-0108)

3월 1일(목)

■광운정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보살계 수계법회=서울 광운정사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오후 2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보살계 수계법회, 국악공연회 행사를 개최한다. (02389-8966)

■능인선원 백일기도 입제=능인선원은 새벽 3시 30분 큰법당에서 백일기도 입제식을 봉행한다. (02577-5800)

■조계사 신도회 철야정진=조계사 신도회는 2일(수)부터 2일간 팔공산 갖바위에서 철야정진기도를 실시한다. 출발은 오후 6시 조계사 앞 (02732-2187)

■광덕스님 사봉일기 1,2 출판기념회=도솔산 도피안사는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광덕스님 사봉일기 1, 2>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031676-8700)

3월 2일(금)

■강남포교원 수계법회=강남포교원은 저녁 8시 부처님 출가제일을 맞아 삼귀의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539-2631)

■산사음악회=청년불자 중창단인 LMB싱어즈는 11시 사천 운흥사 산사음악회를 연다. 또한 7일 저녁 7시 육군사관학교 졸업법회에서 초청 연주회를 갖는다.

■포교사 품수식=조계종 포교원은 4일까지 대진 한국통신연수원에서 제 6회 포교사 교시 합제자 연수 및 품수식을 거행한다. (02720-7060)

3월 4일(일)

■부산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부산 감로사는 8일까지 제방 큰스님을 모시고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회를 봉행한다. (051809-0926)

■실상사 작은학교 개교식=실상사 작은학교는 11시 큰법당에서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교 대안교육(비인가 중등과정)에 나선다. (063636-3369)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 및 신계사=조계종 총무원회는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민족화합과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를 개최한다. (02735-5864)

■보현선원 서암스님 초청법회=보현선원은 오전 11시 ‘위대한 자기완성의 길’을 주제로 전 조계종 총정 서암스님을 모시고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23494-6441)

### 생활속의 불교

#### 조연에게도 박수를

태어나서 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 육신의 삶은 생로병사의 테두리 속에 있고 정신의 삶은 울고 웃는 오욕칠정의 연쇄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일러 나그네 길 같다고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점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떠돌다 가는 나그네 일까보나 한다.

나아가 우리는 삶의 마디마디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성공과 실패라는 명패도 붙여보고, 낡아도 매겨보고, 우열을 가려 보기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찬사와 지탄, 박수와 외면, 존경과 멸시 같은 부상을 안기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은 서로 비슷비슷한 삶이 아니라 천차만별 가지각색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채색된다. ‘위대한 아무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필부필부도 그렇게 정의되어 버린다. 과연 실상도 그러할까?

도리를 깨우쳤다는 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한낱 혼구름에 불과한 존재다. 거만(巨萬)의 부를 쌓았다 해도 그 부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고, 경국지색의 미모라 해도 그건 환상 속의 허깨비 놀음에 불과한 것이 된다.

나온 도리를 알고 갈 곳을 보는 선사들의 말이 그렇다면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선사들의 대답은 이러하다. ‘그건 연극배우의 연기와 같은 것이다’

연극 배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일단 무대에 올라간 이상 배역을 탓하지 않는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번듯한 역할을 희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 지역이 되었든 왕의 역할이 되었든 한 막 연극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을 뻔히 알기 때문에 배우들은 주어진 배역을 열심히 소화해 낸다. 선사들의 대답은 바로 그 점을 암시한다.

TV 연속극을 보노라면 주연급보다 조연 배우의 연기가 더 돋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만약 그 조연 배우가 제 역할이 싫다고 대중대중 대언어(大言)했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조연과 단역 배우에게도 박수를 아끼지 말자. ■龍眼

##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선원(시민선방)

# 서암대선사 초청법회

### 서암대선사 위대한 자기 완성의길

2001년 3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

서암 스님

← 상문동      도봉역      도봉구청 의정부 →

도봉2동 우계역      크린 장동명원      성균관대 야구장

도봉시장      범상빌딩 2층 보현선원      한화 주유소

- 교통안내
  - 지하철 : 1호선 도봉역에서 도보로 5분
  - 1호선 창동역에서 75번 마을버스를 타고 '성균관대 야구장 하차'
  - 일반버스 : 15, 20, 20-1, 125, 135-1번, 성균관대 야구장 하차
- 문의 : (02) 3494-6441-2
- 장소 : 보현선원 (시민선방)
- 위치 :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성균관대 야구장 맞은편.